

“로베르토 로메로 박사, 외국인으로 첫 수상”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시상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수상자들과 함께했다. 앞줄 왼쪽부터 조승우·오병하 교수 부부, 로베르토 로메로 교수, 김준범 교수 부부. 뒷줄 왼쪽부터 박승정 아산의학상 심사위원장, 김태현·김명자 아산재단 이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 이승규 아산의학상 운영위원장, 이봉주 아산재단 이사.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시상하는 제9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 부문에 오병하(55)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임상의학 부문에 로베르토 로메로(Roberto Romero·64) 미국국립보건원 교수가 선정됐다. 젊은의학자 부문은 조승우(40) 연세대 교수와 김준범(40) 울산대 교수가 수상했다. 기초·임상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 부문에는 각각 5천만 원 등 수상자 4명에게 총 상금 7억 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3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과 금종해 고등과학원 원장·송중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이승규 아산의료원장·이철 전 연세의료원장·김정희 KAIST 생명과학기술대 학장 등 학계와 의료계·의학관련기관 인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이홍구 이사를 비롯한 아산재단 임원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역대 수상자 중에서는 고재영·박승정 울산대



시상식에는 26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장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왼쪽부터).

교수, 정종경 서울대 교수, 서판길 울산과학기술대 교수, 이명식 연세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이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산의학상을 제정해 2008년 제1회 수상자로 김효수 서울대 의대 교수를 선정했다.

제1회부터 5회까지는 기초와 임상의학 부문에서 매년 한 명씩 번갈아가며 시상하였으나 제6회부터 최고 권위의 의학상에 걸맞도록 기초와 임상에서 각각 한 명씩, 또 젊은의학자 부문에서 두 명씩 모두 4명으로 수상자 수를 늘렸다.

국제적인 의학상으로 발돋움

올해부터는 수상자 범위를 국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인재양성에 힘쓴 해외 의과학자로 확대해 국제적인 의학상으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수상 후보자는 의과학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국내 및 해외 의과학자로서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젊은의학자 부문은 40세 이하이다.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인 오병하(55, 10~13p 참조)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셀>(Cell)과 <몰레큘러 셀>(Molecular Cell) <사이언스>(Science) 같은 세계 유명 과학저널에 여러 차례 표지논문으로 소개된 생명과학자로서 생명의 근원인 단백질의 구조를 다수 규명했다. 앞으로 암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암 치료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인 로베르토 로메로(64, 14~17p) 미국 국립보건원 주산의학연구소 교수는 산모와 태아 건강의 최고 권위자로서 임신부와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주산의학과 관련해 13명의 국내 의학자를 지도하고 공동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국내 산과학과 태반병리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젊은의학자 부문에서는 조승우(40)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와 김준범(40) 울산대 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가 각각 기초와 임상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18~19p). 조승우 교수는 줄기세포와 조직공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난치성질환 치료기술을 개발했고, 심장수술을 많이 하는 김준범 교수는 심장판막 및 혈관질환 수술의 새로운 치료지침을 제시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아버님의 15주기에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아산재단을 세우신 아버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본다”면서 “올해는 특히 미국국립보건원의 로베르토 로메로 박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상식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산의학상은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의과학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한 정몽준 이사장은 <셀>과 <사이언스> 같은 과학저널에 여러 차례 논문을 게재한 오병하 교수의 연구업적과 예술가가 많은 가족관계를 상세히 소개했다.

“처음 외국인 수상자를 배출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정몽준 이사장은 새벽 2시 퇴근이 예사인 로메로 교수의 연구 열정을 들려준 데 이어 조승우·김준범 교수를 차례로 소개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인류의 건강에 공헌한다는 보람으로 연구와 진료에 매달려온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인사말을 마무리 지었다.

범의학자로 잘 알려진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축사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의학자에게 아산의학상이라는 큰 상을 주는 뛰어난 발상을 한 것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큰 업적”이라면서 “아산의학상이 우리나라 최고 의학상으로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고, 머지않아 세계적인 의학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아산재단 홈페이지 www.asanfoundation.or.kr에서 인사말과 축사, 수상소감, 그리고 관련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